

[로스쿨 합격기]

## 로스쿨 10기행(行)

황 현 정

-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입학(제9기)



### I.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계기

고등학생일 때부터 장래희망 란에는 항상 “변호사”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변호사가 맡은 정의롭고 화려한 역할에 매혹되어서 인지, 변호사를 고급 전문직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평판 때문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꿈을 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법학과로 진학을 했고, 사법시험을 2년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채로 망망대해를 건너려는 노력은 실패했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엔 아무런 준비가 안돼있었고, 이미 신입사원 채용이 되기엔 나이도 많은 축에 있던 터라 비법률분야에서의 취직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결국 다시 법률분야로 돌아와 간신히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취직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가사사건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 가족법개정 관련 교육 및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기본적인 가족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무료소송구조, 가정폭력개선 상담, 교육 및 캠페인 등을 관장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법률구조기관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학교에선 알 수 없었던 법조업무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기본적인 가정 법률 상담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업무 성격이 변호사의 업무와 비슷한 면이 많다보니 보다 더 전문적인 법

를지식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인적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기관에서 일 하는 동안 법률로서 한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을 많이 느꼈고,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보니 똑같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의 법률지식을 도구로 써서 해결방법을 창작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 만약 변호사가 된다면 더욱 넓은 범주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일들을 평생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변호사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이번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에 반드시 진학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리트준비 및 면접 준비 등을 하며 약 8개월간의 수험(?) 생활 끝에 로스쿨에 합격하였습니다.

저의 진학 계기를 위처럼 길게 늘어놓은 것은 저 정도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대한 '절실함'이 클수록 성취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리트 점수 발표와 면접준비, 원서접수를 앞두고 계신 미래 법학전문대학원생 여러분들도 처음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결심한 계기가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계기가 무엇이든(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그 안에서 '절실함'을 찾으신다면 지금의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를 보다 수월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II. 진학 준비

### 1. 학점, 리트, 영어성적

#### (1) 학점

저는 법학과를 졸업 했으나 당시엔 전공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법학전공수업을 많이 듣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공 평점 또한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서접수를 할 때 가고 싶었던 많은 로스쿨들을 선택지에서 건너낸 채로 지원학교를 골랐어야 했습니다. 높은 학점이 로스쿨 입시에서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높으면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큰 메리트를 가진 요소입니다. 이 때문에 아직 학점을 높힐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하시고, 이미 낮은 학점을 가지고 계신 지원자분들은 학점만으로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점이 높지 않더라도 법학 수업 수강을 한 경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요소로 보는 경향도 있으니, 되도록 이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하시거나 따로 사설학점은행기관에서 법학 독학사를 수료하시는 것도 별도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 리트(LEET)

### 1) 스터디 모임

저는 2016년 3월부터 회사근무와 리트시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근무시간 때문에 학원의 강의는 들을 수 없었고, 주변에 리트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인터넷강의를 듣다 보면 결국 흐지부지 될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리트수험 준비방법을 검색해보던 중 많은 수험생들이 스터디모임을 활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맞는 시간에 적절한 강제성을 갖고, 합의된 방식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해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 리트 준비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카페인 “서로 연합하는 스터디”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3번씩 진행하는 스터디를 구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의 기출문제를 1회분씩 각자 풀 뒤, 문제풀이를 검사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풀이 방식도 배우자는 취지로 한명씩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말로 풀이하는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풀이가 일찍 끝나거나 문제풀이를 더 하고 싶은 스터디원이 있는 경우 사설문제집을 1개 지정하여 시간을 정해 놓고 같이 풀고 풀이하는 식으로 문제풀이 실전 감각도 틈틈이 익혔습니다. 저의 경우 총 6명이 참여 했었고, 각기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로스쿨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였던 스터디 모임이었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 차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풀이 방식을 배우면서 점차 문제풀이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생활 병행으로 심신이 많이 지쳤었지만, 함께한 스터디원들의 조언과 격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도움을 덤으로 얻기도 했습니다.

### 2) 자습

다른 스터디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부시간 때문에 저는 짧은 시간 동안 틈틈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습 방법이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미 로스쿨에 진학한 학부 동기들과 인터넷 카페에 공유된 학습방법들을 참고하여 저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리트시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출문제 오답노트를 여러 번 돌려 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노트를 만들지 않고, 틀렸거나 맞췄어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문제에 체크를 해두고, 여백에 스터디원들 풀이했던 방식 들 중 좋은 풀이 방식들을 적어 놓고 출퇴근 중에 잠깐, 잠시 시간이 뜰

때 한문제 씩 들여다 보았습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큰 노력 들이지 않고 수험감각을 유지하기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3) 시험 직전 1달

스터디원들 대부분이 학원 강의를 들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와 문제집 1개만 잡고 있는 것이 불안했고, 풀었던 것만 보다보니 긴장이 풀어져서 문제해결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사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한 달을 남겨두고 학원의 파이널 문제풀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는 마당에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정신적으로 부담만 커질까 주저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는 방편으로만 생각해 점수에 가급적 신경 쓰지 않는 방향으로 풀다보니 실제 시험장에서 덜 긴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4) 시험 당일

시험이 토요일이어서 전 날까지 출근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은 취하지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갔습니다. 오전에 언어이해를 풀고 학교 주변 카페에서 빵과 차를 마시면서 배가 많이 부르지 않되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문제 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장소와 환경으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는 편이어서 수험장에서 벗어나 조용히 추리논증 오답노트를 훑어보면서 오후 시간에 담담히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 언어이해의 점수는 평소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나왔던 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고, 추리논증은 평소보다 소폭 상승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리트는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중요한 만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시뮬레이션도 중요한데, 이때 도움이 되실까하여 상세하게 적어보았습니다.

### (3) 영어

외국어 측정능력시험은 학교별로 반영비율과 환산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점과 평소 리트점수 그 밖의 정성요소를 고려하여 마음에 둔 지원예정학교의 입시요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시험점수로 변별력이 많이 발생하는 로스쿨에 지원하실 예정이라면 리트직전까지 높은 점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영어시험을 응시해야겠지만, 일정점수 이상으로 변별력이 발생하지 않는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라면 그 점수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영어시

험에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입시 수험 시간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에서 라도 전년도 입시요강을 미리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7년 입시요강에 TOEIC점수 900점 이상은 영어시험환산점수를 만점을 부여했었기 때문에, 그 이상 점수를 받은 뒤론 리트시험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3. 자기소개서 및 면접

#### (1) 자기소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미리 치러본 친구들이 입을 모아 로스쿨 입시에서 가장 많이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준비사항입니다. 리트시험과는 조금 다르게 들인 노력과 시간에 비례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로스쿨의 자기소개서는 매년 비슷한 형태인 경우가 많으니, 작년도 자기소개서 양식을 참고하여 미리 지원할 학교의 자기소개서를 써보거나 최소한 어떤 소재를 쓸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틈틈이 메모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소개서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글쓰기 방식과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소 중 전자는 단기간 내에 여러 사람의 첨삭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후자는 비교적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곳이 ‘법학전문대학원’이다보니 ‘법학’관련 소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학이란 학문이 단시간에 체득하기 어려운 학문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법학에 익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입학 후에도 좀 더 수월히 적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학관련 경험이란, 학부시절 법학과목을 수강했던 경험부터, 관련기관에서 봉사활동 내지 인턴을 했던 경험 또는 공인된 경로가 아니어도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법률문제 등도 포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재는 대부분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쓸 내용이 없다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이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 평소 법학 관련 활동에 관심을 두고 경험을 쌓아두거나 과거의 경험에서 법학관련성을 찾아 앞으로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반영할지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법학전공, 법원참관 경험, 법률구조기관 인턴 및 근무 경험 등으로 활용할 소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유효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침삭의 경우, 학원에서 받는 침삭은 비용이 너무 많이 부담되었고 주변에 믿고 자기소개서 침삭을 부탁드릴 만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친구 및 선·후배 2-3명에게 각각 2-3차례 침삭을 받았습니다. 침삭해 주신 분들 모두 두 번 이상 입시를 치러본 경험이 있어, 본인의 합격한 자기소개서와 불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비교해주며 글의 구성과 소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고, 제가 쓴 자기소개서의 표현을 바로잡아주거나 좀 더 강조할 부분을 선별해주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자기소개서를 다음은 결과 합격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 면접

면접의 경우 자기소개서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고 알고 있었고, 매일 출근하면서 학원의 수업방식에 대해 알아본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리트 시험을 준비할 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리트시험 응시 1주일 만에 “서로 연합하는 로스쿨”에서 면접 스터디 모임을 구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낮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이야기해보는 경험을 쌓고 싶어 각각 8명, 6명으로 구성된 총 2개의 스터디 모임에 들어갔고, 주 2회씩 총 주 4회씩 모의면접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 1달은 면접용 수험서를 하나 정해 주제별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해보거나 당시 이슈로 떠오른 사회적 이슈(정치, 사회, 문화, 과학기술, 법조 등)에 대한 기사를 하나씩 정리해 이를 발표하고 토론한 뒤 이에 대해 노트를 정리하며 면접에서 답변할 문구 및 표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 모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하나의 쟁점에도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들 중 보다 더 적절한 시각을 비교적 빨리 체득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면접에서 겪을 수 있는 돌발질문이나 압박질문에 대처하는 능력을 단기간에 길러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어서 용기를 갖고 가급적 많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면접시험일로부터 1달을 남겨 놓고서는 지원하는 학교 기출문제를 놓고 실제 시험 보듯이 대기시간과 답변시간을 정해 면접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면접의 경우 강의를 듣는 것보다 직접 부딪쳐서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 면접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답변시간을 꼭 채워서 답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십번 모의연습을 한 스터디 활동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4. 원서접수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할 학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중요하게 보는 정량 요소가 다르고, 정성 요소의 반영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학교의 입시요강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전년도 입시결과를 보여주는 학교별 입시 분석 레포트(메가로스쿨 제공)까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갖춘 학교와 그 학교에서 자신의 위치를 비교분석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9월 말에 개최하는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합동 입시설명회에 가서 학교별 부스에 찾아가 자신의 합격가능성과 합격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의하다보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게 좋을지 보다 범위가 좁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소문이나 인터넷상의 익명성 조언들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자료와 주관적인 판단으로 지원할 학교를 고른다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좀더 주체적으로 긴 입시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어서 여러모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위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학교와 상향으로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을 해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 IV. 맺으며

리트 시험준비부터 면접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는 방법이 정형화 되어 있지 않아 어려운 반면 그 만큼 다양한 방법이 통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본인에게 맞는 수험 방법만 찾는다면 보다 빨리 합격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의 위치나 속도에 집중하기보다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보고 자신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목적과 마음가짐에 대해 반추해보며 그 안에서 '절실함'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리트시험이 치러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참 싱숭생숭할 시기에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목표를 잊지 않고 나아가신다면 당기 마련이니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꼭 합격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